

조선시대의 생원진사시 합격자 수록

CD-롬 사마방목은 조선 태조 원년부터 과거가 폐지된 고종 31년까지 치러진 총 230회의 생원 진사시험 합격자를 수록한 방목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186회분 생원 진사 4만 649명의 신원과 가족사항 등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어 조선 양반사회와 국가권력구조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즉, 조선시대 실시되었던 문과, 무과, 생원 진사시, 잡과 등의 과거 가운데 생원 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인 사마방목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함으로써 당시의 양반계급 형성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원 진사시를 소과, 감시 또는 사마시라고도 했던 데서 연유한 사마방목은 합격한 생원 진사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으며 성균관에서 수학한 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생원 진사시는 총 230회가 시행되었으며,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식년시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았던 증광시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식년시는 163회, 증광시는 67회가 실시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매회당 100명씩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19세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서울시스템은 공동으로 조선시대에 치러진 생원 진사시험 합격자 4만여명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사마방목을 전산화한 CD 타이틀을 최근 개발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후반 철종임금 때부터 합격자수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합격자 신상명세 수록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사마방목은 총 230회 가운데 186회분으로서 조선시대에 배출되었던 생원 진사의 85%에 해당하는 생원 1만 9,675명, 진사 2만 974명 등 총 4만 649명의 합격자를 수록하고 있다.

CD-롬 사마방목에는 이들 4만 649명의 시험볼 당시의 신분과 이름, 자, 생년, 본관, 거주지 등과 함께 가족사항으로 부친이나 친척들의 관직과 이름, 형제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조선시대 대부분의 양반들이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았어도 생원 진사시에 응시했었던 사례에 비취볼 때 동 CD-롬은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동 CD-롬은 2년전인 95년 서울시스템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사연구실로부터 CD-롬 개발을 의뢰받아 자사의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에서 개발했다. 개발 방식은 기초전산 입력 데이터의 오류를 모두 교정하고 포맷을 변환하는 한편, 인명과 지명, 관직 등에 쓰인 총 5,412종 145만 5,609자의 본문 한자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의 수록범위를 넘어서는 745자의 글꼴을 새로 제작하였다.

사용환경은 486이상의 PC로서 메인메모리 4메가 이상, CD-롬 드라이브와 마우스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 버전은 윈도우95와 윈도우3.1 등을 지원한다. 가격은 개인용은 20만원이며 네트워크용은 200만원이다. **DC**

